

## 도시생활쓰레기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수도권주민의식 조사분석

남궁완, 손태익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 A Survey for Source Reduction and Recycling of Household Waste in Seoul Metropolitan area

Wan Namkoong, Tai-Ik Soh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 ABSTRACT

A survey was carried out in Seoul Metropolitan area during December of 1993 and January of 1994. The objective of the survey was to provide a usefu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ecycling policies, regulations and systems in Korea. Of the 782 individuals contacted, 473 individuals completed and returned surveys, of which 437 were usable.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 statistical package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86% of apartment area has recycling bins, while only 33% of individual house(detached dwelling) area has those.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felt that food waste is the major source of household waste.

The most serious problem to recycle more household waste is to provide space to store recyclables at the source. The majority of Seoul Metropolitan(78.5%)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recycling programs, while 14.4% want to participate only when there are economic incentives or benefits. Respondents who want economic incentives appeared to be low income people. 66.1% of total respondents said that they do not use disposables. However, only 53.0% among respondents under 30 years old answered they do not use disposables. People who graduated from middle high school only and

are under 30 years old have tendency to dispose of used milk cartons without rinsing and drying, while those who are over 40 years old and graduated from university preferred to rinse and dry used milk cartons before disposal.

Regarding disposal of newspapers, only 43.9% of the total respondents separated newspaper from other types of used paper. In the case of aluminum cans, 22.5% of the total respondents answered that used aluminum cans are not recyclables. Much higher portion(30.4%) of the respondents who graduated from middle high school only felt that aluminum cans have no value to recycle. The results indicated that educa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recycling are highly desirable.

## 초 록

수도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1993년 12월부터 1994년 1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우리나라 폐기물재활용 정책, 법규 및 제도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총 782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473개가 회수되었고, 그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437개이었다. 설문조사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아파트지역의 경우 86%정도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33%에만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중에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답하기를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쓰레기가 가장 양이 많다고 하였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재활용품을 집안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수도권 주민의 78.5%는 기꺼이 재활용시책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부(14.4%)는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경우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들 혜택을 원하는 층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응답자 중에서 66.1%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30세 미만 응답자 중에는 오직 53%만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졸업자이면서 30세 미만의 응답자들은 상당수가 우유팩을 그냥 버리는 반면에, 40세 이상이며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은 상당수가 우유팩을 세척한 후 말려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고 답하였다.

신문지의 재활용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오직 43.9%만이 신문지를 별도로 모아 재활용수거함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캔에 대해서도 22.5%가 재활용 불가능한 물질로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중졸이하의 경우에는 30.4%나 되어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 론

우리사회는 70년대 후반 이후 고도의 산업사

회로 발전하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가구의 증가와 고도성장기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성향이 서구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도시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여 요즘은

우리생활주변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생활쓰레기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필요성이 한층 요구된다.

사회생활의 최소기본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한 도시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실태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성향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재활용체계를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활용을 각 가정에서 생활화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시하여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폐기물처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년간에 걸친 실증적 체험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도시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답할 수 있는 여러형태의 문항을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분석하였다.

## 2.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 2.1 조사의 개요

조사기간은 1993. 12. 14~1994. 1. 13(30일간) 이었고 조사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표본의 선정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면 가정에서 직접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표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 20세 이상의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하였다.

### 2.2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조사는 집단표본조사와 개별면접조사를 혼용하였으며, 집단표본조사(A 그룹)는 서울 서초구 소재 N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주부 교육생 700명을 대상으로 58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개별면접조사(B 그룹)는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수도권지역을 포함하여 동. 서. 남. 북 4개 지역권으로 나누어 4명의 조사원이 무작위로 19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주요조사 내용은 총 31개 항목으로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제반여건에 관한사항을 5개 항목, 생활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사항 6개 항목, 주요생활쓰레기의 항목별 분리배출 및 처리실태에 관한 사항 8개항목, 생활쓰레기 재활용 및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태에 관한 사항 6개 항목으로 총 24개 항목이었다.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응답자에 관한 사항(성별, 주거형태, 연령, 교육정도, 소득수준, 주거위치)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항목별 질문의 내용과 조사결과는 손(1994)의 논문집 부록 I (설문지 및 응답결과 집계표)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 2.3 응답자에 대한 자료

그룹별 설문지 회수율 및 유효응답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룹 A는 집단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58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298매를 회수하여 50.9%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유효응답자수는 266명으로 45.5%이었다. 그룹 B(개별면접조사)는 무작위로 19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75매를 회수하여 88.8%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유효응답자수는 171명으로 86.8%에 해당하며 개별면접조사의 회수율과 유효응답율이 집단표본조사의 회수율과 유효응답율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있다. 본 연구를 위한 총 유효응답자수는 437명으로 총 설문지 배부수 782매의 55.9%에 해당한다.

유효응답자의 성별, 주거형태, 연령, 교육정도, 소득수준 등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표 2

표 1. 설문지 회수율 및 유효응답율

구분 그룹	설문지 배부수	설문지	유효응답자(% 회수배수(%))
A	585	298(50.9)	266(45.5)
B	197	175(88.8)	171(86.8)
합계	782	473(60.5)	437(55.9)

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본조사의 유효 응답표본은 30대 이상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월평균 소득이 대부분 1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유효응답표본의 지역분포도 및 월평균소득별 유효응답표본의 지역분포도 및 월평균소득별 구성내역을 표 3 및 표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응답자가 서울시 전역 및 수도권 일산, 성남시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유효응답자 437명 중 서초구(93명), 양천구(53명), 강남구(47명) 거주자가 44.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일산시(16명), 성남시(12명)가 전체 70명중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계 및 분석을 위하여 본조사표를 통계프로

표 2. 유효응답자의 특성분포(단위, %)

성 별		주거 형태		연 령				
남	여	아파트	주택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9.2	90.8	78.3	21.7	11.7	25.9	37.3	17.4	7.8

  

교육정도			월평균 소득수준(단위, 만원)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100	101~150	151~200	>201
6.9	43.7	49.4	16.5	34.1	28.4	21.1

표 3. 유효응답자의 지역분포도(단위, 명)

서초	양천	강남	성동	송파	중랑	강동	은평	동작	종로	관악
93	53	47	18	17	15	13	13	13	12	12
서대문	노원	도봉	강서	용산	성북	마포	동대문	영등포	기타	수도권
12	9	9	6	6	5	4	2	2	6	70

그램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지역, 연령, 주거형태, 교육정도, 소득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본 통계표에 대한 신뢰도는 95%로 허용오차 d는 다음과 같다

$$d = \frac{1.96 \times P \times (1-P)}{\sqrt{N}}$$

P=해당문항의 보기에 응답한 표본비율

N=해당응답자 수

예를들어 응답자수가 437인 경우 최대 허용오차는 4.69%이다. 표본수가 크면 허용오차의 폭이 줄어들며, 최대 허용 오차는 표본비율 P가 0.5(50%)인 경우이다. 본 조사의 응답결과집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손(1994)의 논문 부록 I 및 부록 II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3. 결과의 분석 및 고찰

각 항목별 설문지 내용은 「 」안에 표기하고 논술의 편의상 바로 응답내용을 분석 및 고찰한

표 4. 유효응답자의 월평균 소득별 구성내역(단위, 명(%))

구분 \ 소득	전 체	100만원이하	101~150	151~200	201만원이상
전 체	437(100)	72(16.5)	149(34.1)	124(28.4)	92(21.0)
서울	367(84.0)	56(15.2)	114(31.1)	114(31.1)	83(22.6)
수도권	70(16.0)	16(22.9)	35(50.0)	10(14.3)	9(12.8)
아파트	342(78.2)	56(16.4)	117(34.2)	100(29.2)	69(20.2)
주택	95(21.7)	16(16.8)	32(33.7)	24(25.3)	23(24.2)
30대미만	51(11.7)	14(27.5)	19(37.3)	9(17.6)	9(17.6)
30대	113(25.9)	15(13.3)	50(44.2)	34(30.1)	14(12.4)
40대	163(37.3)	14(8.6)	45(27.6)	56(34.4)	48(29.4)
50대	76(17.4)	17(22.4)	27(35.5)	15(19.7)	17(22.4)
60대이상	34(7.8)	12(35.3)	8(23.5)	10(29.4)	4(11.8)
중졸이하	30(6.9)	16(53.3)	9(30.4)	2(7.2)	3(10.1)
고졸	191(43.7)	48(25.2)	78(40.7)	42(22.0)	23(12.1)
대졸이상	216(49.4)	8(3.7)	62(28.7)	80(37.0)	66(30.6)

다. 또한 설문항목 중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본절에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3. 1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주변여건

3.1.1 「귀하의 주거지역에는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가」

전체응답자의 25.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는데 이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14.7%는 단독주택이고 11.2%는 아파트 지역으로 나타나서 이를 주거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67% 이상, 아파트지역은 14% 이상이 아직도 분리수거함이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응답자의 44.4%가 분리수거함이 4종류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대부분이 서울지역의 아파트거주자였다.

3.1.2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부피기준으로 월 평균배출량이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종류인가」

전체응답자의 45.1%는 주방쓰레기 및 젖은 오물류라고 대답하고 43.9%는 종이류라고 응답하여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이상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종이류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1.3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체응답자의 61.1%가 여러종류로 분리할 경우 잠시라도 보관하려면 장소가 문제라고 대답했고 23.1%는 노력하는 만큼 혜택이 없는것 같다고 대답하여서, 원만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분리배출이 가능한 방안의 연구와, 노력한 만큼 경제적 혜택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월 201만원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월 100만원이하)에 비하여 분리배출자체를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전체 응답자의 23.2%는 대형쓰레기(가구류, 가전제품 등)은 제조업체가 수거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22.3%는 분리수거함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용량도 품목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8.4%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교육과 홍보를 해야한다고 했고, 16.5%는 품목별로 수거일자나 요일을 지정하여 수거해야한다고 응답함으로써 현행 수거체계의 보완과 분리수거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정기적인 주민교육의 필요성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2 생활쓰레기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

3.2.1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전체 응답자의 53.1%가 다소 손이가고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협력하겠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인 참여의욕을 보였으며, 25.4%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겠다고 하였고, 14.4%는 시간과 일손이 들어간 만큼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협력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생활쓰레기를 당연히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인식보다 나에게 혜택이 있을 경우에만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특히 혜택을 바라는 사람들은 고소득층(5.2%)보다는 저소득층(19.4%)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 쓰레기종량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저소득층이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2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거나 수거하게 하고 있는 품목」

전체 응답자 중에서 폐신문지는 85.4%, 빈병류 77.8%, 헌책은 65.9%, 종이상자류 62.5%, 우유팩 59.0%, 알미늄캔은 54.0%로 비교적 높은 분리배출율을 보인 반면에, 각종 플라스틱 용기류는 45.1%, 섬유류 42.6%, 철제캔은 34.3%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이들 3개 품목은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

전체 응답자의 87.9%가 비닐봉지는 모아두고 다시 사용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떨어졌다. 66.1%는 일회용품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데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비율이 떨어져서 53.0%에 불과하여 젊은 층에서는 편리함을 이유로 여전히 일회용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6.5%가 우유팩은 씻어서 말린 다음 따로 모아 재활용 할 수 있게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아파트의 경우가 59.9%로서 단독주택의 44.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대 미만의 경우 36.8%에 불과하였으나 40대의 경우 배에 가까운 63.8%를 나타내었다. 학력별 또한 큰 차이가 있어서 중졸이하의 경우 46.4%에 불과하였으나 대졸이상의 경우 61.9%로 높게 나타났다.

재사용 가치가 있는 물건은 이웃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23.3%,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나 비닐봉지 대용품 등을 들고 간다고 응답한 사람이 12.8%에 불과하여 아직도 의욕과 실제의 행동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2.4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전체응답자의 53.5%가 일정한 장소에 따로 모아 되비나 사료로 재활용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하였고, 36.6%는 노력한 만큼 환경문제가 해결된다면 참여하겠다고 대답하여 음식쓰레기 재활용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3.2.5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체응답자의 43.7%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공동책임하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35.1%는 주거환경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합심노력으로 깨끗하게 가꾸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책임의식이 높은 반면에, 19.6%는 주민세와 오물수거료 등 각종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하여 금후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시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3.3 주요생활쓰레기의 항목별 분리배출 및 처리상태

### 3.3.1 「가정에서 폐종이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전체응답자의 31.8%가 신문지만 따로 모으고 다른 종이는 그때그때 버린다고 응답했으며, 54.3%가 신문지, 헌책 및 잡지, 우유팩, 기타 종이 등 3종류 이상으로 구분해서 분리수거하게 한다고 응답한 반면, 12.8%는 모이는대로 그냥 버린다고 대답했다.

### 3.3.2 「폐신문지는 어떻게 분리하여 모으고 있느냐」

전체 응답자의 43.9%는 신문지만 따로 모은다고 대답했으며, 46.9%가 신문지는 광고지 및

우편물 등과 함께 모은다고 대답하였고, 7.6%는 따로 분류하거나 모으지 않고 그때그때 버린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신문지를 광고지 및 다른 종이들과 혼합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내 폐신문지의 질이 떨어지고 분리가공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지만 따로 모으는 경우 중졸이하(33.3%)보다는 대졸이상(48.2%)이 높게 나타났다.

### 3.3.3 「빈 맥주병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전체 응답자의 36.8%가 구입한 곳이나 가까운 슈퍼에 반납하고 개당 몇십원씩 환불 받는다고 대답했으며, 28.4%는 분리수거함에 넣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게 한다고 했고, 16.2%는 따로 모아 부녀회, 노인회,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수거하는데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81.4%가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처리형태를 살펴보면 월소득 100만원이하의 계층에서는 48.5%가 환불을 받는 대신 월소득 2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22.7%만이 환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는 저소득층의 경우 거의 없는 반면 200만원 이상의 저소득층은 12.8%에 달하였다.

### 3.3.4 「빈 알미늄캔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전체응답자의 35.2%는 일정량씩 따로 모아서 분리수거함에 넣는다고 응답하고, 15.3%는 따로 모아서 노인회, 부녀회,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수거하는데 협력하고 있다고 했고, 10.3%는 빈 상자에 따로 모아 두었다가 지정된 수거일에 수거하게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24.5%는 잡쓰레기와 함께 버린다고 대답함으로써 아직도 상당량이 분리수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5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전체응답자의 40.5%는 음식물찌꺼기만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서 버린다고 대답했고, 36.8%는 젖은 오물, 잡쓰레기들과 함께 비닐봉지에 싸서 버린다고 했으며, 20.4%는 물기를 꼭 짰 후 따로 비닐봉지에 싸서 버린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60.9%가 음식물찌꺼기만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별도의 수집체계를 갖추면 이용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6 「유해폐기물인 폐건전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전체응답자의 59.2%가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는다고 대답한 반면에, 22.3%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대답하였고, 17.4%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모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모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인 2~30대 젊은 주부층으로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교육과 효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나타내고 있다.

3.4 생활쓰레기 재활용 및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태

3.4.1 「재활용하기가 가장 용이한 식음료용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전체응답자의 37.5%는 유리병, 32.7%는 종이팩, 15.3%는 알미늄캔류, 10.5%는 플라스틱이나 패트용기라고 응답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알루미늄캔의 경우 대졸이상 20.9%를 보인 반면 중졸이하의 경우 10.1%에 불과하였다.

3.4.2 「페플라스틱 용기나 제품이 우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것일까」

전체응답자의 63.6%가 잘 썩지 않아서 문제라고 대답하였고, 19.7%는 태울 때 유독가스가 발생하니까, 11.0%는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문제라고 대답하였다.

3.4.3 「오물수거료의 책정기준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전체응답자의 45.5%가 세대별 쓰레기배출량 기준이라고 대답했으며, 37.9%는 세대별 가족수 기준이라고 응답하고, 9.2%는 세대별 재산세 과표기준, 7.3%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사자의 개별면접조사시 현행 오물수거료의 책정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그간의 오물수거료는 다른 공과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던 관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4.4 「아래 열거한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신문지는 전체응답자의 95%가, 우유팩은 93.8%, 맥주병은 86%, 알미늄캔은 78.5%, 플라스틱 용기는 55.8%, 화장품 병은 55.1%가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주석캔은 27.2%, 연탄재는 29.1%, 폐건전지는 32%, 음식물찌꺼기는 36.2%만이 재활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여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가 상당수 있었다. 알루미늄캔의 경우 대졸이상 졸업자는 19.8%만이 재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중졸이하의 경우 30.4%에 달하여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



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 4. 요약 및 결론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주민 437명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과 배출실태를 조사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주변여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67%, 아파트지역의 경우 14% 이상이 아직도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 배출량이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방쓰레기 및 젖은 오물류이며, 분리배출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잠시라도 보관하기 위한 공간 확보문제였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수거체계를 보완하여야 하며 분리수거함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용량도 품목별로 조정해야 하며, 정기적인 주민교육과 품목별 수거일자나 요일을 지정하여 수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생활쓰레기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분석해 보면 전체응답자의 78.5%가 분리수거하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의욕을 보였으나 14.4%는 시간과 일손이 들어간 만큼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올 경우에 한하여 협력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혜택을 바라는 층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저소득층이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응답자의 66.1%는 일회용품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데 30대미만의 경우에는 비율이 떨어져서 53.0%에 불과하여 젊은 층에서는 편리함을 이유로 여전히 일회용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팩의 경우 56.5%가 씻어서 말린 다음 따로 모아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가 단독주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30대에 비하여 40대에서 두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음식물찌꺼기의 재활용에 대하여는 53.5%가 일정한 장소에 따로 모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책임문제에 대하여도 78.8%가 지역주민의 책임하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 및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폐신문지를 따로 모으는 경우는 43.9%에 불과하였고, 맥주병의 경우 고소득층은 거의 환불을 받기 위하여 가게에 반납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48.5%가 가게에 반납하여 환불을 받고 있었다.

알루미늄캔의 경우 불과 35.2%만이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고 하여 상당히 재활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음식쓰레기의 경우 60.9%가 따로 분리배출하고 있어 별도의 수거체계가 확립되면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 및 홍보실태를 살펴보면 특히 저학력층의 경우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연구기간동안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국내외에서 다수 입수하여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 아쉬웠던 것은 국내에서는 이런 연구와 관련된 기초자료나 논문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나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나 현장실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지역특성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생활환경의 기초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실용적인 재활용시스템 개발과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서 주민의식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도시쓰레기 재활용의욕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대환(1994), “한국인의 자기발전”, 김영사
- 2) 홍두승(1993),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 3) 손태익(1994), 도시생활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분석,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4) 김영호(1991) 리사이클링 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미래학회 주관 제1회 심포지움 보고서, pp.173-194
- 5) 김정욱(1991),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방안에 관하여, 한국미래학회 주관 제1회 심포지움 보고서, pp.159-172
- 6) Hidehiko Inoue(1991), “Collecting Waste Which is Separated According to Material as the Duty of Local Government”, The Japan Society of Waste Management Experts, Vol.2 No. 2, pp.22-29
- 7) Hiroshi Takatsuki(1992), “Reduction of Domestic Waste and Changes of Life Style”, The Japan Society of Waste Management Experts, Vol.3 No.4 pp.3-11
- 8) James G. Abert(1993), “Seattle Household Waste Recycling Survey-Results and Analyses”, 미, 일 Recycle 조사연구회 보고
- 9) Seattle Solid Waste Utility(1993), “Seattle's Comprehensive Waste Management Strategies”, Division of Seattle Engineering Dept.
- 10) Shin-ichi Kolzumi(1991), “The Age of Recycling Activities as a Culture” The Japan Society of Waste Management Experts, Vol.2 No.2 pp.14-21
- 11) Yasoi Yasuda(1991), “Waste Management Problems and Resource Recycling Policy”, The Japan Society of Waste Management Experts Vol.2 No.2 pp.5-10
- 12) 小松正幹(1990), “ごみの分別に關わる住民の意識.行動”, 第11回 全國 都市清掃研究會 講演論文集, pp.4-7
- 13) 倉阪秀史(1993), “環境行政とリサイクルについて”, 生活と環境, Vol.38 No.4 pp.38-43
- 14) 渡邊浩平(1991), “家庭系 廢棄物のリサイクル實態の解明”, 第12回 都市清掃 研究會 講演論文集, pp.58-60
- 15) 宇田川 順堂(1993), “分ければ資源混ぜればゴミ”, 生活と環境, Vol.38, No.4, pp.49-54
- 16) 寄本勝美(1992), “ごみ収集の有料化と市民自治”, 月刊廢棄物, pp.175-179,
- 17) 小山義夫(1989), “分別収集ごみ収集回數の増加等に伴う排出狀況の實態調査”, 都市清掃 第42卷 第170戸, pp.245-249